

# 함께 살피고... 나누고... 도, 추석 종합대책 추진

### '민생' 과 '방역' 집중 4개 분야 16개 과제 진행... 성수품 물가관리 · 꼼꼼한 의료 서비스 지원 · 종합 상황실 운영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추석을 맞아 도민들의 삶을 함께 살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석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4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오미크론 추가 확산 속에서 도민이 추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고물가·고금리의 녹록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 명절 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민생 안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방역 및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는 선제적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명절 대목을 통한 소비촉진

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에 대한 물가관리와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한다. 차질 없는 물가 및 수급관리를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액을 상황에 전통시장 장보기를 활성화한다.

또, 광범위한 민생회복을 키워드로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농어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농어가당급,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 저소득층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임금체불 특별집금을 통해 피해자가 없도록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의료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명절 주요시설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

고, 연휴기간 21개의 응급의료기관과 366개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휴기간 확진자 발생 증가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26개소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 344개도 확보해 코로나19방역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와 함께,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편안하게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교통편 등 편의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민원의 기상특보 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는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도내 677개 주요 상수도시설의 비상대책반 운영, 가축전염병 대응반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명절 기간 발생

할 유사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속버스는 1일 42대, 시외버스는 1일 10대를 늘려서 운행하고, 철도는 추석연휴동안 총 48회를 늘려 운행한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어느 때보다 많은 도민께서 생계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의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변이확산 속도가 빨라져 재유행 우려가 있는 만큼 추석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도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살피고 함께 나누는 편안한 추석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튜브 공모전

###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 · 공감대 형성 목적 총 14팀 선정 · 탄소중립 생활실천 물품 시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튜브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 폭우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민들의 동참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공모주제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냉방 온도 2°C 높이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등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다.

출품작은 1~5분 이내 분량의 순수 창작물(mp4 파일 1280x720 HD급)이며 개인 또는 팀별로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방법은 필수 핵심어(#전라북도, #전북지속협, #전북기후넷, #탄소중립생활실천)를 첨부해 유튜브에 작품을 업로드하고, 신청서 및 영상파일 등을 전자우편(jcsd@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공모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www.jcs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적합성, 창의성, 홍보성, 구성력 등 심사를 거쳐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등 총 14명을 선정해 전기자전거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 물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도 탄소중립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김경수 기자



## 도-13개 지역 고용 서비스기관,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한 소통 간담회

### 군산조선소 재가동 인력 확보 애로 공동 대응 지원 · 군산조선소 재가동 인력 확보 애로 공동 대응 지원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보 접근성 향상방안 의견수렴 · 도내 전 시군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확산 추진 등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30일 전북일자리센터와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고용서비스 향상 표준화를 위해 지역 내 13개 고용서비스 기관이 모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일자리센터, 고용위기센터, 고용안정센터, 로컬잡센터 등 도·시군 주도하에 고용서비스 기관이 독자 운영되고 있고, 올해 진안과 임실에 신규 기관이 개소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전북일자리센터는 지난 18일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에 참가해 참여기업들로부터

현대조선소 협력사 대상 맞춤형 인력을 적기 공급해달라는 현안을 접수했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고용서비스 기관 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과제를 발굴해 구직자 및 구인기업에 수준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군산조선소 적기 가동을 위한 시군별 협업방안과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현장 해결형 일자리 서비스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각 지역별 고용문제 대응과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이슈

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협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군산 내 인력공급뿐만 아니라 시군 고용서비스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총동원해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형별(구인,구직,재직), 계층별(청년,신년 등), 성질별(구직 활동지원, 고용보조금, 채용 약정 기업지원, 직업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종합협업 구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향후 참여기관의 추가 확대와 효과적인 정책홍보 등 폭넓은 연대

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민에게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한 구직자를 손쉽게 채용하는 조건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현안인 일자리문제 대응에 있어 시군과의 협업을 더 단단히 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현안 분석에서 협력강화, 문제해결과 실행력 확대까지 확보하여 전북 고용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자리센터 조용권 팀장은 "전북일자리센터가 지역내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주대 변주승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위촉

전주대학교 변주승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제20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변주승 교수는 조선시대사 전공자로 조선시대 인문지리사인 '여지도서', 조선 후기 정치·범죄사·사회사 자료인 '추안급국안' 등 방대한 사료의 번역과 연구를 주도했다.

그동안 협동번역 거점연구소 지원사업, 지방대학혁신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등 고전학·인문학 연구사업단의 책임자로 인문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변주승 교수는 현재 한국고전학연구소 소장, 인문학플러스(HK+) 연구단 단장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하며,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상장 수여

### 노인복지과 장미소 · 환경보전과 이송하 · 산림복지과 정현 주무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30일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의 편의 및 만족에 기여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해 처리한 경우 민원 건별로 마일리지 부여하는 제도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

일했다.

2022년 상반기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 장미소 주무관,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전과 이송하 주무관, 산림사업 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복지과 정현 주무관 등 3명이 선정돼 상장을 받았다. 또한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1명에게 매월 10만 원을 포상한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